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6, Vol. 11, No. 4, 655-67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김민너[†] 채규만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를 활용하여 부부의 문제를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변화의 측면으로 보고, 기혼자들이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결혼생활 전반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연구는 K-MSI를 실시하여 결혼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330명의 남녀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첫째,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전반적인 결혼만족도 정도를 살펴본 결과, 신혼기에는 전반적인 불만이 가장 적고, 그 이후 불만족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생활주기별 남녀 기혼자의 전반적인 불만족 정도를 살펴볼 때, 기혼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생활 전반에 대해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혼자들은 여러 가지 배경변인에 따라 가족생활주기별 결혼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있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영역들은 기혼자들이 처해있는 가족상황과 시기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부 문제를 부부 둘만의 관계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부부를 둘러싸고 있으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족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을 배경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주요어 :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orean-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 가족생활주기(Life Cycle)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민너, (136-742)서울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FAX : 02-920-7132, E-mail: she0418@nate.com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결혼이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위 획득, 자녀출산 등 실용적 필요성을 우선시하고 도덕과 사회규범을 강조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배우자간의 정서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결혼생활의 안정성(stability)보다는 부부간의 결혼만족도(satisfaction)를 추구하는 쪽으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권정혜, 채규만, 1998). 이러한 부부관계의 특성은 결혼생활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반면에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 현대의 부부는 상호간에 정서적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결혼생활에서의 정서적 만족감이 고갈될 경우 심각한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게 됨으로써 불만스러운 결혼생활을 영위하거나 이혼에 의하여 가족을 해체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최근 더욱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이혼한 부부는 총 14만 5300여 쌍으로 전년보다 1만 300쌍이 늘었으며, 10년 전과 비교할 때 결혼하는 쌍은 27%가 줄고 이혼하는 쌍은 171%가 늘었다(동아일보, 2003. 11. 23). 심지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성급한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 부부가 이혼에 합의 하더라도 일정 기간 반드시 냉각기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혼율을 낮추고자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그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동아일보, 2003. 11. 23).

여러 연구자에 의하면 가족의 스트레스는 가족 발달 과정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에서 가장 심하고, 가족생활주기의 진행이 방해받거나 진로에서 벗어날 때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Batty Carter & Monica McGoldrick, 2000). 가족생활주기의 전환점(transition points)에서 나타난 가족 스트레스가

흔히 가족생활주기의 붕괴를 가져오며, 문제 증상과 역기능을 유발하고 중요한 가족생활주기 사건이 또 다른 가족생활주기의 사건과 시간적으로 근접한 경우, 이후의 가족생활주기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관련이 있다(Walsh & Anderson, 1987). 이러한 과정에서 불안정한 부부관계는 부부 자신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자녀의 건전한 인성 발달, 사회생활, 나아가 결혼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문제아, 청소년 비행, 이혼률 증가 등 가정의 위기나 해체와 관련되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다.

지금까지 부부문제에 관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특정시기에 있는 부부 혹은 기혼자들의 결혼만족도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변인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에만 관심을 두어 가족과정의 측면에서 과업의 변화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부부문제를 살펴보는 시도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기혼자들이 결혼생활의 시기에 따라 당면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가족생활주기를 6 단계로 나누고, 부부의 문제를 각 단계별로 변화하는 측면으로 살펴봄으로써 보다 폭넓게 부부문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부부가 처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예견되는 문제들을 파악하여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 및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부부 갈등을 최소화하고 결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가족생활주기(Life Cycle)는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고, 비슷한 위기에 직면하며, 비슷한 발달과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가족을 어떤 범주로 구분하여(장윤옥, 1993), 각 단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제문제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홍향숙, 1989). 가족생활주기 단계s,s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학자들에 따라 3단계에서 24단계까지 다양하게 구분되므로 일반적인 구분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우며, 연구목적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한다(김정하, 1993). 본 연구에 사용된 가족생활주기는 핵가족화하고 있는 한국가족의 가족생활주기를 첫 자녀의 성장을 기준으로 분석한 “한국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설정에 관한 연구”(유영주, 1984)에서 제시한 6단계를 참고하였으며, 그 모형은 다음과 같다.

- ① 형성기: 결혼으로부터 첫 자녀 출산 전까지 약 1년간.
- ② 자녀출산 및 양육기: 첫 자녀 출산부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 ③ 자녀 양육기: 첫 자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기.
- ④ 자녀 성년기: 첫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 군복무 중이며, 가사를 협조하는 시기.
- ⑤ 자녀 결혼기: 첫 자녀의 결혼으로부터 막내자녀 결혼까지.
- ⑥ 노년기: 막내 자녀 결혼으로부터 배우자가 사망하고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를 본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 6단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 ① 결혼 적응기
- ② 자녀출산 및 미취학기
- ③ 자녀 학령기
- ④ 자녀 청소년기

- ⑤ 자녀 성년기
- ⑥ 자녀 결혼기

결혼 적응기는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시기이다. 결혼생활 전체를 통해 볼 때 이 시기는 부부간에 적응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매우 중요하며, 이 때에 적응이 안 될 경우 이혼으로 결혼생활이 종결되는 확률이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자녀 출산 및 자녀의 미취학기는 첫아이 출생과 함께 결혼이 확대된 형태로 옮겨지면서 이에 따른 불안정한 관계를 감지하게 되고 가중되는 자신의 역할을 재인식하면서 힘겨움을 느끼게 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자녀의 출산에 따른 가정환경의 변화와 자녀 양육이라는 새로운 과제의 출현은 부부의 관계에서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며 이 시기의 부부관계에서 중심 문제가 된다. 자녀학령기는 자녀가 공식적으로 학교교육을 통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발달단계로서 초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시기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도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수가 최대의 크기에 이르게 되며, 가족은 어린이의 교육과 사회화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자녀 청소년기는 자녀가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시기로서, 첫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부터 만 18세 사이에 있는 경우를 자녀 청소년기라고 규정하며 본 연구에서도 이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 단계는 자녀의 학습활동과 대외적인 각종 활동이 활발하여 부모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청소년 자녀가 있는 이 단계의 부모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하는 과업을 갖고 있고, 비교적 두 사람의

동반의출 및 여행이 가능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자녀 성년기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대학에 다니거나 취직, 군입대, 혹은 가사를 협조하는 시기로 본 연구에서는 첫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성년이 되었지만 결혼을 함으로써 완전한 독립은 하지 않은 경우를 자녀성년기로 구분하였다. 이 단계의 부부는 기존의 자녀 중심의 가족 형태에서 벗어나고,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벗는 시기이다. 자녀 결혼기는 자녀가 결혼을 통하여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성취하는 시기로, 본 연구에서는 첫 자녀의 결혼으로부터 막내자녀의 결혼까지를 자녀결혼기로 구분하였다. 이 시기는 자녀의 결혼으로 인해 생계비에 있어 최대의 부담을 가지게 되며, 새로운 가족 성원이 생기게 되어 부부는 이 시기 동안에 조부모의 역할을 획득하게 된다.

만족(satisfaction)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목표와 욕구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하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Hawkins(1968)은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의 모든 면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행복, 즐거움, 만족 등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이것은 태도이며 개인의 특성이라고 하였다. Hichs와 Platt(1970)도 결혼만족도를 자신의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태도로 보았다. 이와 같이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는 부부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태도를 의미하는 일반적 용어로서(권정혜, 채규만, 1998),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으며, 결혼행복도(Marital Happiness), 결혼적응도(Marital Adjustment), 결혼성공도(Marital Succession), 부부 친밀도(Marital Intimacy) 등이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를,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선호의 정도를 의미하며, 선호의 정도는 만족에서 불만족에 이르는 연속선상의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결혼연수가 거듭될수록 결혼만족도가 감소하여 중년기에 가장 낮아져서 이런 현상이 노년기까지 계속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Blood & Wolfe, 1960).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U자형 곡선 나타낸다는 견해, 즉 신혼초기에 가장 높다가 자녀양육기 동안 계속 감소하며 자녀가 모두 성장해 독립해 가면서 높아진다는 견해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olling & Cannon, 1974).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결혼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남편의 경우는 후기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유영주, 1993). Swenson(1981)등에 의하면 결혼에서의 갈등은 어린이 양육단계에 가장 높았고 후반기에는 가장 낮았으며 전반적으로 가족생활주기 후기로 갈수록 결혼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이온죽(1969), 정충량·이효재(1971)는 결혼초기에 가장 불만이 적고 그 이후 차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2003년 서울특별시·경기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에 거주하는 기혼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500(남자 250부, 여자 250부)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429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에서 모든 문항에 성실하게 답하지 않은 62부와 극단적으로 비일관적인 반응을 한 37부를 누락시키고, 최종 분석 자료로 남은 총 330명의 기혼 남녀를 그들의 첫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6단계의 가족생활주기로 나누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한국판 결혼생활만족도 검사(K-MSI)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총 17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결혼만족도 검사

결혼만족에 대한 다차원적 측정도구인 한국판 결혼생활만족도(K-MSI) 검사는 Snyder(1979)가 개발한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를 권정혜, 채규만(1998)이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표준화한 것으로 총 160문항이며, 결혼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

K-MSI는 14개의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비일관성 척도(INC), 관습적 반응척도(CNV)는 응답자가 자신의 결혼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왜곡해서 반응하여 결혼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올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는 타당도 척도이다.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재는 나머지 12개의 척도 중 전반적 불만족 척도(GDS)는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를 측정하며, 나머지 11개의 척도는 결혼생활의 세부 영역별 불만족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서적 의사소통 척도

(AFC), 문제해결 의사소통 척도(PSV), 공격행동 척도(AGG), 공유시간 갈등 척도(TTO), 경제적 갈등 척도(FIN), 성적 불만족 척도(SEX), 관습적 성역할 척도(ROR), 원가족 문제 척도(FAM),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척도(CIL), 자녀 불만족 척도(DSC), 자녀양육 갈등 척도(CCR)로 구성되어 있다. 2개의 타당도 척도(비일관적 반응 척도, 관습적 반응 척도)와 비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척도에서 불만족 정도를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에서 불만족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경기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에 거주하는 기혼 남녀 5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각자의 집에서 작성하여 추후에 회수하는 방식을 실시되었다. 부부가 함께 설문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서로 의논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작성할 것을 부탁하였고, 대부분은 본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WIN 10.0을 이용하였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남녀 각각의 전반적인 결혼생활 불만족 정도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남녀 각각의 K-MSI 하위변인 간의 차이, 그리고 기혼자들의 배경변인과 K-MSI 하위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가족생활주기와 전반적인 결혼만족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결과의 이해를 위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타당도 척도 결과는 각각 부록 1과 2에 제시해 두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기혼자의 타당도 척도에 대한 반응결과 첫째, 비일관적 반응척도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다. K-MSI 척도의 해석을 기준으로 할 때, 높은 비일관 반응을 의미하는 T점수 70이상을 대상에서 제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혼자들의 86%가 중간 이상(T점수 56이상)의 비일관 반응을 보였고, 기혼자들의 약 14%만이 일관된 반응을 보였다.

둘째, 관습적인 반응척도에서 기혼자들의 약 61.8%는 높은 관습반응을 보였고, 약 37.9%는 중간정도의 관습반응을, 나머지 0.3%만이 낮은 관습반응을 보였다. 또한 전반적인 불만족 척도에 대한 기혼자들의 반응양상을 살펴보면, 기혼자들의 약 38%가 높은 불만족을 보였고, 나머지 64%의 기혼자들은 중간정도의 불만족을 보였다.

전반적인 불만족 척도에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차이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K-MSI의 전반적인 결혼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결혼적응기(1단계)의 기혼자들 보다 자녀학령기(3단계)의 기혼자들과 자녀결혼기(6단계)에 있는 기혼자의 전반적인 불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F=3.905, p<.05$.

또한, 결혼적응기(1단계)의 기혼자에 비해 자녀청소년기(4단계)와 자녀결혼기(6단계)의 기혼자는 공유시간 갈등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F=4.527, p<.01$. 따라서 전 가족생활주기 가운데 자녀청소년기(4단계)와 자녀결혼기(6단계)에 있는 기혼자가 부부 간의 공유시간에 대한 갈등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 척도에서는 결혼적응기(1단계)와 자녀성년기(5단계)의 남자 기혼자들이 자녀결혼기(6단계)의 남자 기혼자들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F=4.179, p<.01$.

남자는 모든 가족생활주기에서 공유시간에 대

표 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K-MSI 하위척도

	결혼 적응기 (1)	자녀출산 및 미취학기 (2)	자녀 학령기 (3)	자녀 청소년기 (4)	자녀 성년기 (5)	자녀 결혼기 (6)	F	Scheffe 검증결과
전반적인 불만족 척도	56.07 (4.79)	58.07 (4.93)	60.05 (4.39)	59.64 (4.70)	58.68 (4.51)	60.10 (4.79)	3.905*	1<3 1<6
공유시간 갈등 척도	48.96 (5.73)	51.47 (6.07)	51.43 (5.81)	53.98 (6.30)	52.20 (5.76)	53.38 (6.02)	4.527**	1<4 1<6

* $p<.05$, ** $p<.01$

한 갈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지만, 여자는 자녀청소년기에서 공유시간에 대한 갈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나고 있어 자녀 청소년기에 있는 여자가 부부의 공유시간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F=2.047, p=.075, F=3.076, p<.05$.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남녀 각각의 결과는 표 2와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은 기혼자들의 자녀수에 따른 K-MSI 하위척도를 살펴본 것이다. 자녀가 없는 기혼자들에

비해 자녀가 2명인 기혼자들과 자녀가 3명 이상인 기혼자들은 공유시간 갈등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자녀가 많은 기혼자들이 자녀가 없는 기혼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공유시간에 대한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3.075, p<.05$. 또한 자녀가 1명 있는 기혼자들은 없는 기혼자(결혼적응기)들에 비해 전반적인 불만족 척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불만족을 나타냈다, $F=4.537, p<.01$.

표 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K-MSI 하위척도(남자)

	결혼 적응기 (1)	자녀출산 및 미취학기 (2)	자녀 학령기 (3)	자녀 청소년기 (4)	자녀 성년기 (5)	자녀 결혼기 (6)	F	Scheffe 검증결과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 척도	53.74 (4.80)	50.28 (4.39)	52.09 (4.37)	51.50 (3.88)	53.63 (3.97)	49.19 (4.69)	4.179**	1>6 5>6

** $p<.01$

표 2-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K-MSI 하위척도(여자)

	결혼 적응기 (1)	자녀출산 및 미취학기 (2)	자녀 학령기 (3)	자녀 청소년기 (4)	자녀 성년기 (5)	자녀 결혼기 (6)	F	Scheffe 검증결과
전반적인 불만족 척도	53.91 (3.41)	56.50 (4.40)	58.35 (4.77)	58.82 (5.20)	57.64 (3.86)	58.76 (4.72)	4.537**	4>1 6>1
공유시간 갈등 척도	48.04 (5.97)	51.18 (6.34)	49.85 (5.50)	53.50 (5.50)	52.09 (6.22)	52.48 (4.68)	3.076*	4>1

* $p<.05$, ** $p<.01$

표 3. 자녀수에 따른 K-MSI 하위척도

	없음 (1)	1명 (2)	2명 (3)	3명이상 (4)	F	Scheffe 검증결과
전반적인 불만족 척도	56.67 (4.92)	58.32 (4.40)	59.68 (4.64)	58.44 (4.87)	4.537**	1<2
공유시간 갈등 척도	49.17 (5.88)	52.39 (6.17)	52.53 (6.00)	52.72 (6.19)	3.076*	1<3 1<4

* $p<.05$, ** $p<.01$

기혼자들의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20대와 비교할 때, 40대, 50대 그리고 60대가 전반적인 불만족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F=5.968, p<.001$. 즉, 중년기에 해당되는 40대, 50대 그리고 노년기에 해당되는 60대가 성인초기의 20대와 30대에 비해 결혼생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불만족을 나타냈다.

자녀불만족 척도에서는 40대와 50대가 20대와 30대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F=30.202, p<.001$, 자녀양육척도에서도 50대가 30대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F=7.040, p<.001$. 따라서 40대와 50대가 20대와 30대 보다 자녀에 대한 불만족이 높았고, 50대가 30대 보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더 높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K-MSI 하위척도의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거주지에 따라 살펴보면, 비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에서 서울·경기에 살고 있는 기혼자들은 대구·경북에 살고 있는 기혼자들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F=5.943, p<.05$.

이는 서울·경기에 살고 있는 기혼자가 대구·경북에 살고 있는 기혼자 보다 부부의 성역할 행동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혼자의 결혼 지속년수에 따라 K-MSI 하위척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결혼한 지 6년~10년 된 기혼자들과 11년~15년, 16년~20년, 26년~30년 된 기혼자들은 결혼한 지 1년 미만인 기혼자들 보다 전반적인 결혼만족도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

표 4. 연령에 따른 K-MSI 하위척도

	20대 (1)	30대 (2)	40대 (3)	50대 (4)	60대 (5)	F	Scheffe 검증결과
전반적인 불만족 척도	55.97 (3.91)	58.14 (5.02)	59.62 (4.37)	59.90 (4.82)	60.57 (4.55)	5.968***	3>1 4>1 5>1
자녀불만족 척도	18.82 (23.38)	40.21 (24.48)	53.07 (12.34)	54.80 (12.29)	54.00 (10.61)	30.202***	3>2 4>2
자녀양육 갈등 척도	21.41 (27.01)	40.01 (23.68)	51.93 (10.98)	61.24 (78.32)	54.79 (10.33)	7.040***	4>2

*** $p<.001$

표 5. 지역에 따른 K-MSI 하위척도

	서울·경기 (1)	대구·경북 (2)	강원 (3)	기타 (4)	F	Scheffe 검증결과
비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	55.47 (6.38)	52.43 (6.47)	53.53 (5.64)	55.71 (7.25)	5.943*	1>2

* $p<.05$

타냄으로써, 결혼적응기(신혼기)에 해당하는 기혼자들보다 결혼 지속년수가 많은 기혼자들에게서 전반적인 불만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4.433, p<.001$.

또한 공유시간 갈등 척도에서 결혼한 지 6년~10년 된 기혼자들은 결혼한 지 1년~5년 된 기혼자들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F=3.363, p<.01$.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가족 결합의 취약화, 문제가족과 해체가족의 발생, 청소년 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들을 양산하는 부부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K-MSI를 활용하여 기혼자들이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결혼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결혼불만족을 감소시키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연구되었다.

K-MSI의 전반적인 불만족 척도를 통하여 중간 이상의 불만족을 가진 남녀 기혼자들을 그들의 첫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6단계의 가족생활주기로 분류하여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전반적 불만

족 척도에서 남녀 기혼자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K-MSI 하위척도들이 남녀 기혼자에게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배경변인(결혼 지속기간, 연령, 지역, 결혼형태, 결혼 전 교체기간, 자녀수)에서 K-MSI 하위척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기혼자들은 비일관적 반응 척도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다. K-MSI 척도의 해석을 기준으로 할 때, 높은 비일관 반응을 의미하는 T점수 70이상을 대상에서 제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혼자들의 86%가 중간 이상(T점수 56 이상)의 비일관 반응을 보였고, 기혼자들의 약 14%만이 일관된 반응을 보였다. 타당도 척도에서 이와 같은 반응양상은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으나, 기혼자들이 다른 11개의 하위척도들에서 차이를 보이며, 전반적인 불만족 척도에서 대체로 높은 불만족을 보인 결과를 볼 때, 연구 대상자들이 검사에서 비일관적이고 방어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기 보다는 비일관 반응을 측정하는 일부 문항들이 한국 문화에서 일관된 반응을 이끌어 내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 부부들의 결혼생활 자체가 안정되지 않아 기혼자들이 특정문항에 있어 가변적이고 혼

표 6. 결혼 지속년수에 따른 K-MSI 하위척도

	1년 미만	1년~5년	6년~10년	11년~15년	16년~20년	21년~25년	26년~30년	31년~35년	36년 이상	F	Scheffe 검증결과
전반적인 불만족 척도	52.80 (2.44)	57.20 (4.59)	59.46 (4.64)	59.90 (4.82)	60.35 (4.52)	58.49 (4.43)	59.52 (4.38)	59.73 (5.36)	59.67 (5.00)	4.433***	3>1 4>1 5>1 7>1
공유시간 갈등 척도	51.30 (4.90)	49.03 (5.42)	52.38 (6.09)	52.95 (6.68)	54.38 (5.96)	51.77 (5.74)	52.61 (5.89)	53.77 (6.99)	52.93 (5.20)	3.363**	3>2

** $p<.01$, *** $p<.001$

란스러운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인 불만족 척도에 대한 기혼자들의 반응양상을 살펴 보면, 기혼자들의 약 38%가 높은 불만족을 보였고, 나머지 64%의 기혼자들은 중간정도의 불만족을 보였다.

둘째,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전반적인 결혼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자녀학령기(3단계)와 자녀결혼기(6단계)의 기혼자들이 결혼적응기(1단계)의 기혼자들 보다 전반적인 불만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결혼 초기에 가장 불만이 적고 그 이후 차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한 이온죽(1969), 정충량·이효재(1970)의 연구와 일치한다.

셋째,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남녀 기혼자의 전반적인 불만족과 11개의 K-MSI 하위척도를 살펴본 결과, 자녀청소년기(4단계)와 자녀결혼기(6단계)에 있는 여자 기혼자들은 결혼적응기(1단계)에 있는 여자 기혼자들 보다 전반적인 불만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남자 기혼자들에게서는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전 가족생활주기에 걸쳐 남편보다 부인의 갈등점수가 높게 나타난다는 박영옥(1987)의 연구와 일치하며, 전반적으로 가족생활주기에 걸쳐 남자가 여자보다 결혼만족도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Rhyne(198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결혼적응기(1단계)의 여자 기혼자들 보다 자녀청소년기(4단계)의 여자 기혼자들이 공유시간 갈등 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 활동과 공유하는 취미나 흥미가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청소년기(4단계)를 가정의 확대기로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형성기와 가정축소기인 집단이 확대기인 집안에 비해 여가

시간이 많고 보다 활동적인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다고 한 민경애(1984)의 연구와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가사노동 부담 등에서 벗어난 집단에서 여가활동 참여가 높다는 방경애(1996)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반면 전 가족생활주기에 걸쳐 남자 기혼자들에게서는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가활동의 시간이 가사노동 참여 여부 및 시간, 자녀양육 참여율과 관련 있고(방경애, 1996),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남편 보다는 부인이 많다(옥선화, 1982; 박준옥, 1993; 김정애, 2000)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실제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여자 기혼자들 보다는 남자 기혼자들 여가시간에 대한 욕구나 불만족이 더 낮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자 보다는 남자가 더 많은 여가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자녀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김정애(2000)의 연구는 이 같은 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배경변인(자녀수, 연령, 지역, 결혼 지속년수)에 따라 K-MSI 하위변인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수에 따라 K-MSI 하위변인들을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기혼자들 보다 자녀가 2명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기혼자들이 부부간의 공유시간에 대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사노동시간이 주부의 여가시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방경애(1996)의 연구와 일치하며, 자녀가 많은 시기를 가정의 확대기라고 볼 때, 가정형성기와 가정축소기인 집단이 확대기인 집단에 비해 여가시간이 많고 보다 활동적인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다고 한 민경애(198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주부의 여가시간은 감소한다고 한 Firestone & Shelton(1988)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자녀수는 자녀양육을 비롯한 가사노동 부담을 결정짓고, 결과적으로 주부의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자녀가 없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은 과거에 자녀가 다복함의 상징이던 것과 대조를 이루면서 부부중심의 가족체계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혼자들의 연령에 따라 K-MSI 하위변인들을 살펴보면, 40대, 50대, 그리고 60대가 결혼초기에 해당되는 20대 보다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대의 부부 적응도가 가장 높고, 40대 이후가 가장 부부 적응도가 낮다고 한 김효현(1996), 정옥례(199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20대는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도 적고 많은 연구들에서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본 신혼기에 해당되는 것을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기혼자들의 연령에 따라 자녀불만족 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40대와 50대가 30대 보다 자녀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0대와 50대에 해당되는 기혼자들은 자녀양육 시기에 뒤이어 자녀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는 기대로 인해 다른 연령대의 기혼자 보다 자녀에 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기혼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K-MSI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기혼자들이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기혼자들 보다 비관습적 성역할 태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성역할 태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성역할 개념에서 평등한 성역할 개념으로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는 지역, 종교, 교육수준,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이러한 결과는 더욱 보수적이 경향이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기혼자들이 전통성과 근대성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성역할에 있어 더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결혼 지속년수에 따라 K-MSI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결혼한 지 6년 이상 된 기혼자가 5년 미만인 기혼자 보다 전반적인 결혼불만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지속년수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결혼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결혼만족도가 감소한다고 한 Miller(1976)와 홍숙선(2001)의 연구와 일치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반적인 불만족 정도에 있어서 가족생활주기의 일부 단계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기혼여성이 기혼 남성 보다 전반적 불만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K-MSI 하위 변인에 따라 가족생활주기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기혼 여성은 전반적인 불만족, 공유시간 갈등 정도에서 각 생활주기 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기혼 남성은 각 생활주기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끝으로 자녀수, 연령, 지역, 결혼 지속년수에 따라 K-MSI 하위변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전반적인 결혼생활에서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기혼자들이 처해 있는 가족상황과 시기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시사 한다. 특히 우리나라 부부관계의 안정성은 부부관계 자체의 만족 보다는 집단주의적이고 가족주의적인 우리나라의 문화풍토와 관

련한 다양한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부부 문제를 부부 둘 만의 관계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부부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족환경과 사회·문화적으로 가정에 요구되는 과업에 따라 이해하려는 시도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돕기 위해서는 동일 가족생활주기에 속하는 기혼자 혹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혼 남녀가 동일 가족생활주기 내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혼 남자에 비해 여자가 불만족이 더 컸으며, 이는 자녀의 발달과정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결혼생활에서 만족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역할에 대한 상호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자녀의 성장 단계별 기혼자들의 결혼만족도 정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자녀의 특정 발달 단계별 기혼자들의 지각된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결혼 적응기 및 예비 부부 교육 시, 자녀양육에서 파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교육하고 준비시킴으로써 결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관련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를 함께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기혼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K-MSI의 특정변인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나 불만족이 배우자와의 지각 차이 때문인지, 실제적인 문제인지 등 더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부부를 함께 연구 대상으로 하여 결혼생활의 문제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지각 차이와 그에 따라 결혼만족도를

좌우하는 각각의 변인들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제시해줄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표집은 주로 서울·경기,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들을 첫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6단계의 가족생활주기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지역별, 사회계층별 표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족생활주기 가운데 특정 시기에 특정 인구통계학적 특성(지역, 직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할당되어 그 결과를 지역 및 특정 가족생활주기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후에는 다양한 지역 및 가족생활주기별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지닌 피험자들을 고르게 선정한 광범위한 지역 차원의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전반적인 결혼생활에서 불만족하고 있으나, 결혼생활을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종결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차후의 연구에서는 결혼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불만족을 겪고 있지만 결혼생활을 종결하지 않고 유지하게 만드는 변인에 대한 질적인 연구를 통하여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비일관적 반응척도에서 T점수 70이상을 대상에서 제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혼자의 86%가 중간 이상(T점수 56이상)의 비일관 반응을 보였고, 기혼자들의 14%만이 일관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연구 대상자가 검사에 비일관적으로 반응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비일관적 반응을 측정하는 일부 문항이 한국 문화에서 일관된 반응을 이끌어 내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 부부의 결혼생활 자체가 안정되지

않아 기혼자가 특정문항에 가변적이고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비밀관적인 반응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결혼만족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K-MSI를 결혼생활의 특정 영역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만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K-MSI 척도의 활동도를 높여 결혼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뿐 아니라 기혼자들이 각 가족생활주기별로 당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11개의 세부영역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적인 문제들도 함께 살펴보았다. 특히 가족생활주기를 6단계로 구분하고 각 주기별로 기혼자들에게 주어지는 과업이 다르며, 그 과업에 따라 불만족을 결정하는 문제가 다양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족의 중심에 있는 기혼자들의 문제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를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심리 치료 및 부부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활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정자 (1999). 오늘날의 결혼과 가족. 형설.
- 권정혜, 채규만 (1988). 한국관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논문집, 35-51.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관 결혼만족도 검사의 타당화 연구 II: 이혼상담집단과 자녀상담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권 2호, 139-150.
- 권혜연 (1996).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영향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숙 (1998). 도시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 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양희 (1993). 한국 가족의 갈등 연구. 중앙대학교 출판부.
- 김정애 (2000). 자녀성장단계별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비교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옥 외 (1999). 새로 보는 결혼과 가족. 도서출판 신정.
- 김혜경 (1986). 결혼초기 부부의 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민경애 (1984). 주부의 여가 시간과 여가 활동의 실태와 지향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방경애 (1996). 성역할 태도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전업주부의 여가활동 참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옥 (1987).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준옥 (199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사역할 분담 유형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사내 (1999). 결혼생활 만족과 부부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옥선화 (1980). 한국 가정의 가정생활 주기에 관한 고찰. 성심여자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생활과학 연구논집, 1(1), 17-27.
- 옥선화 (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실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옥선화, 정민자 (2000). 결혼과 가족. 하우.
- 유영주 (1993). 가족관계학. 교문사.
- 이경희 (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

- 부관계유형.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동원 (1989). 도시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옥진 (1982).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가정 환경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유숙 (1998).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와 부부 간의 사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효재(1971). 도시인의 친족관계. 서울: 한국연구원.
- 장윤옥 (199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직 주부의 시간제약 지각이 역할 갈등과 시간 제약 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문자 역 (2000). 가족생활주기와 치료적 개입, 중앙적성출판사.
- 정승혜 (1988). 부부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 만족도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옥례 (1996). 중년기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부부 관계 및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병은 (1993). 가족의 위기와 해체. 하우.
- 홍향숙 (1989).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소비생활 문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동아일보 (2003). “이혼 전 냉각기간 논란, 3~6개월 검토 vs 행복추구권 위배, 11월 23일.
- 동아일보 (2003). “뉴스추적-이혼 그리고 그 후, 홀로서기의 조건”, 11월 23일.
- Ammon, P & Stinnett, N. (1980). *The Vital Marriages : A closer book* Family Relations.
- Duvall, E. M. & Miller, B. C. (1985).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New York: Harper & Row.
- Firestone, Juanita & Beth Anne Shelton. (1988). An Estimation of the Effect of Women's Work on Available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4): 478-495.
- Glenn, N. D. (1991). Quantative research on marital quality in the 1980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4), 818-831.
- Guemey, B. Jr, & Maxxon, P. (1990). Marital and family enrichment research: A decade review and look ahea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 Miller, B. C. (1976). A multivariate developmental model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8: 643-657.
- Piercy, F. P. & Sprenkle, D. H. (1990). Marriage and family therapy : A decad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 Rogler, L. H. & Procidano, M. E. (1986). The effect of social networks on marital roles: A test of Bott hypothesis in an intergenerational contex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8: 693-679.
- Rollins, B. C. & Cannon, K. L. (1974).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a reevalu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6: 271-282.
- Spanier, G. B. (1979). *Marital sability and Marital Quality*. in Burr, W. R. et al.(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 Free Press.
- Walsh, F. & Anderson, C. (1987). Chronic disorders and families: An overview. In F. Walsh & C. Anderson(Eds.), *Chronic disorders and the family*, Special issue, *Journal of Psychotherapy and the Family*, 3:3.

논문접수일: 2006년 5월 4일

수정논문접수일: 2006년 11월 20일

게재결정일: 2006년 10월 21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6. Vol. 11, No. 4, 655 - 671

Marital Satisfaction by family life cycle

Kim, Min Nyeo

Chae, Ku Man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research looks at problems married people face over their married life in various family life periods. In this study, the problems are looked at in more detail utilizing the Korean-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 In particular, this research attempts to understand marriage problems from a new angle by observing these problem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family life periods.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was 330 married men and women who had some degree of dissatisfaction in their married lives.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f the research. First, from observing the overall degree of marriag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family life periods, it was shown that the dissatisfaction was the lowest among the newly weds and it increased as couples progressed onto the later stages. Second, when we looked at overall degree of dissatisfaction in married men and women according to the family life periods, women showed higher degree of dissatisfaction than men overall. Thirdly, the following shows the result of observing K-MSI lower area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 These various results show that the areas affecting the degree of marriage satisfaction for couples vary greatly according to the family situation and family periods that the couples are i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ttempt to understand marriage issues in light of the family, society and cultural environments surrounding the couple which change dynamically, rather than understanding the issues merely from the immediat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ple.

Keywords : Korean-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 Life Cycle

부록1. 위치

<부록 2> 2개의 타당도 척도와 전반적 불만족 척도에서의 기혼자들의 반응양상

반응양상	비일관 반응 척도		관습적 반응 척도		전반적인 불만족 척도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상	147	44.5	204	61.8	124	37.6
중	138	41.8	125	37.9	206	62.4
하	45	13.6	1	0.3		